

시편 62편 묵상 -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인자함을 얻습니다

개역	사역
<p>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p> <p>2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p> <p>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p> <p>4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p> <p>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p> <p>6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p> <p>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p> <p>8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p> <p>9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러 입김보다 경하리로다</p> <p>10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p> <p>11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p> <p>12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이다.</p>	<p>1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p> <p>2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p> <p>3 언제까지 너희는 다함께 한 사람에게만 덤벼드느냐? 기울어진 벽과 흔들리는 담과 같은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p> <p>4 오직 그의 높은 자리에서 그를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p> <p>5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나의 영혼아! 나의 소망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p> <p>6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p> <p>7 하나님께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있으며, 나의 견고한 반석과 나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p> <p>8 백성아, 언제든지 그분만을 의지하여라. 그분께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p> <p>9 오직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도 거짓일 뿐이다.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들은 모두 합해도 입김보다 가볍다.</p> <p>10 너희는 강압을 의지하지 말고 강탈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p> <p>11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두 가지를 들었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도다.</p> <p>12 그러나 주님, 자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p>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이 시편에서 자주 나옵니다. 62편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은 61-63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다린다’는 말이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오래 지속될 때에는 스스로 침체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인가? 조용한 저녁에는 그러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질문과 함께 62편을 찬찬히 읽어가려고 합니다.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지었는지는 표제어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흔들려대고, 그를 높은 위치에서 떨

어뜨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를 지었는데 이 시는 매우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니” 하는 시의 첫 구절이 그러한 것을 잘 표시합니다.

62편에 ‘셀라’라는 말이 4절과 8절에 나옵니다. ‘셀라’는 그 부분을 높여서 부르라 혹은 잠시 멈추라는 악상 기호입니다. 그 기호를 중심으로 세 연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1연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니” 하는 말로 시작하고 2연은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는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과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노래하는 말로 끝납니다. 62편의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에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게 된다는 결론으로 인도합니다.

62편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일곱 번 나오고 ‘구원’이라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일곱이나 넷은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확실함을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 번 혹은 두 번 나오는 단어들도 이 시편의 주제를 더 다양하게 강화합니다. 그런데 여섯 번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연에서는 ‘오직’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2연에서는 두 번, 그리고 3연에서는 한 번만 나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더 분명히 나타나다가 뒤로 가면서는 시인의 확신 고백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될 때에 확신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러한 상황을 ‘오직’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동하는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시편입니다. 한 연씩 읽어가겠습니다.

1. 하나님을 기다림과 원수의 공격 (1-4절)

- 1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 2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시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영혼이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에게서만 자기의 구원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군대도 거느리고 있었고 그 군대를 사용하여 자기를 구원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든든한 요새인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자기는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란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누인 것처럼 평온할 때에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화를 내고 크게 요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원과 요새라고 부를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주님에게서 구원을 찾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처럼 변하지 않으시며, 피할 곳이 되신다고 하면서 위급한 때에도 하나님께 피하여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3-4절에서는 그가 처한 상태를 잘 묘사합니다.

- 3 언제까지 너희는 다함께 한 사람에게만 덤벼드느냐?
기울어진 벽과 흔들리는 담과 같은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 4 오직 그의 높은 자리에서 그를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3-4절에서는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듭니다. 그 사람은 기울어진 벽과 흔들리는 담과 같아서 조금만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도 그냥 넘어질 연약한 자입니다. 그 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많은 사람이 연합하여서 덤벼듭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질 만한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달려듭니다. 그가 넘어지기 전까지는 안심을 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그들이 몰려옵니다.

연약한 시인을 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오직 그의 높은 자리에서 그를 떨어뜨릴 궁리’를 한다는 말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의 동기를 표현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보다 높은 곳에 있는 이 사람을 용납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파멸만을 원하고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무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거짓말과 저주입니다. 다윗을 높은 자리, 곧 왕의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면서 거짓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시편 3:2에서 압살롬이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하는 흑색선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의 말을 하는 자들이 그러한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와서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어떤 사실을 알아내려 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그 저주를 실행에 옮길 것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혹시 위급한 상황이라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같은 저주의 말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눈앞의 원수를 바라볼 때에는 마음이 요동하겠지만 자기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러한 고요함이 3-4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시인은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1인칭으로 묘사하지 않고 “흔들리는 담과 같은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하고 3인칭으로 담담히 서술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이지만 3인칭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시인은 계속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자기의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2. 하나님을 기다림과 인생의 모습 (5-8절)

- 5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나의 영혼아
나의 소망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 6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5-6절의 내용은 1-2절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3-4절이 있기 때문에 5-6절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다른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5절과 1절을 비교하면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니” 하면서 평서문을 사용하였는데 5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면서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라는 현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자기의 영혼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1절의 ‘나의 구원’이라는 말이 5절에서는 ‘나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시인을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이것이 소망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1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으나 6절에서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크게’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5-6절과 1-2절의 차이점들에서 뉘앙스의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인은 이제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독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자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5절이 1절에서 같은 내용을 다른 뉘앙스로 표현하는 데에서 시인의 어려운 상황을 더 동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시인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계속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우리는 계속하여 어려움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한 번만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평정심을 얻은 신자는 계속하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반석과 구원과 요새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 **하나님**께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있으며,
나의 견고한 반석과 나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8 백성아, 언제든지 그분만을 의지하여라.
그분께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주님을 요새라고 고백하는 것은 요새로 피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때임을 암시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하여 자기의 구원과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그의 영광을 진토에 밟으려고 합니다(시 4:2; 7:5). 그러한 때에 그의 영혼과 그의 영광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 안에 자기의 구원과 영광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였습시다. 외부의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견고한 바위와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시인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 ‘영광’ ‘반석’ ‘피난처’의 네 가지로 고백한 시인은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초청하고, 그분이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시인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것에 다른 사람이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찬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나의 피난처’가 ‘우리 피난처’로 넓혀지는 것은 믿음의 일입니다. 언제든지 주님만을 믿으면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고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매우 어렵고 곤궁한 형편에 있음을 깨닫고 자기의 영혼으로 호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실제로 등산해서 산성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함으로써 하나

님께 피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맞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좋은 문장으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토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간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의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한 마디의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호소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풀어 주신 큰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양한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게으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있어서 별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따라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다른 것과 더불어서 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아는 시인은 계속하여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3. 연약한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 (9-12절)

1) 연약한 인생

9 오직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도 거짓일 뿐이다.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들은 모두 합해도 입김보다 가볍다.
10 너희는 강압을 의지하지 말고
강탈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9-10절에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이어서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첫째, 사람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 입김이라는 것은 저울로 달 수도 없고 무게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특징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가 비록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짓을 사용하여서 오른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아무런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만 시인은 그들의 부와 지위는 거짓에 근거한 것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인은 세상에 있는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모두 합해도 입김보다 가볍다고 선언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사 40:15) 하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둘째, 강압이나 강탈에 호소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거짓으로 혹은 거짓된 폭력으로 재물을 모으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건전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고 부지런히 노력하여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매우 즐겁고,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그러한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11-12절)

11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두 가지를 들었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도다.

12 그러나 주님, 자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조소하고 때로는 거짓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니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니까 시인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애함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앞날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 곧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짧은 선언은 인생들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 함께 기울어진 벽과 흔들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 사람을 높은 데에서 떨어뜨릴 궁리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강압하거나 강탈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물이 늘어날 때에 거기에 마음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제력을 키우려는 것은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자기의 힘이 크다는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인생은 입김에 지나지 않지만 자기에게 큰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선언하자 시인은 “주님, 자비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응답하였습니다.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데 첫째는 자비함이 주님께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은 힘을 추구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약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피할 뿐 아니라 주님을 산성으로 삼은 많은 사람이 모두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도 없고 사람을 높이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둘째, 시인은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권능이 주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행한 사람, 거짓과 폭력을 사용하여 자기의 꾀를 이루려고 한 사람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인자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피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반석과 구원, 요새와 피난처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피한 사람의 행위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62편은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말합니다. 1-2절과 5-6절을 비교하면 기다리는 시인

의 확신이 조금 약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시인은 끝까지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둘러서 공격하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시인 한 사람을 흔들뿐 아니라 높은 데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고 자기 마음을 여호와께만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께 피하고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 것을 뜻합니다. 피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란 시인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비하심을 보여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자기에게 피한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62편에서 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6에서 시편 62편의 맨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롬 2:6)

바울 사도는 로마서 2:7-8에서 6절의 말씀을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언약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하고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면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나오는 이 시인은 로마서 2:7-8에 묘사된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권능이 있다고 믿고 나간 이 시인은 7절에 이야기한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참고 선을 행하였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참고 선을 행하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아가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나타날 것을 바라면서 이 시인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지극히 높일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노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온전히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신하의 아내를 취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사람 세계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자 뿌리가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잠잠하셨습니다. 그 종교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하였고 합법을 가장한 폭력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시인은 혼자인데 그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은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많은 백성을 향하여서 “백성아, 언제든지 그분만을 의지하여라. 그분께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고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시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출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그에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62편을 읽습니다. 다윗이 가리켰던 그분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많은 사람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그분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셔서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히 2:10-12).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새생명을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입혀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입혀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짓말과 저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고 자기가 올라서려던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참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폭력을 멀리하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하여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연약해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된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고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62편이 가르쳐 주는 복음, 곧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은교회. 2008년 10월 19일)